10강 기독교 윤리와 기뻐하는 삶

(1교시)

◆ 기독교 윤리와 기뻐하는 삶

※ 학습목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아가페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 아가페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아가페)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교리적인 코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 맥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종말(오늘 하루 밖에 나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이라고 할 수 있다.

* 삼위일체: 예수가 계시한 하느님은 성부(聖父)·성자(聖子) 및 성령(聖靈)의 세 위격(位格)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다. 하느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성령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다.

* 참고서적: 『뜻으로 본 한국역사』(함석헌/ 한길사)

▲ 기뻐하는 삶
「 "하루하루가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심판이요 역사가 심판이다. 허송세월이란 있을 수 없다. 깨어서 사는 것이다. 지나간 것은 찌꺼기다. 찌꺼기는 돌볼 것이 못된다. 내일을 찾으면 안 된다. 내일은 아직 도착되지 않은 손님이다. 언제나 오늘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인생은 어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오늘 오늘 오늘에 있다." 」

「귀천(歸天)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www.artnstudy.com

「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 평안하다. 평안하다 “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6, 16-18)」

기독교인의 행복은 이 세상의 삶이 신의 은총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 신과 교통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은 사는 사람이 죽음 이후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쁘게 살 수 있다.

「매미는 6~17년간의 긴 시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다가 성충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수명은 불과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살이를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는 곤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루살이(mayfly)는 평균 1년(긴 것은 3년)을 유충으로 지낸다. 성충으로 지내는 기간이 대략 하루일뿐이다. 장수풍뎅이는 일반적으로 3-4개월 밖에 못산다고 한다. 인간의 수명은 60에서 70 혹은 80 이다. 요즘 더 오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www.artnstudy.com